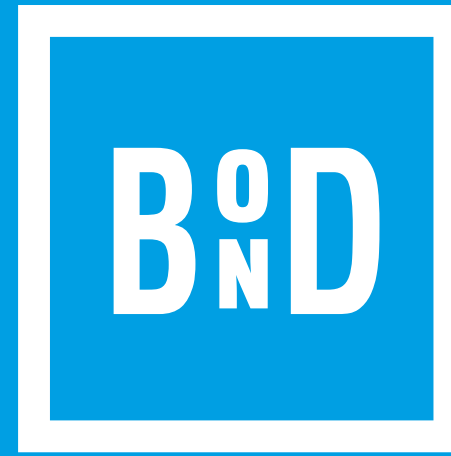


알아두면
쓸모있는
브랜딩
뉴스



BRAND
OPEN
NEWS
DIGEST



Vol. 303

0x440E...950E



홈



마켓



N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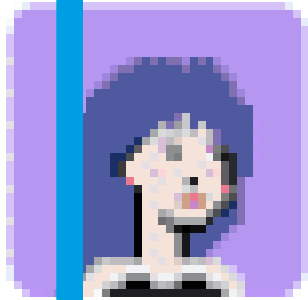


프로필

로그인

로그아웃

Korbit Company



귀하의 NFT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NFT 팔아보기](#)



OpenSea

🔍 Search items, collections, and accounts



korbit

Korbit Company

232 items (248 items sold) 20 items listed...
[See mo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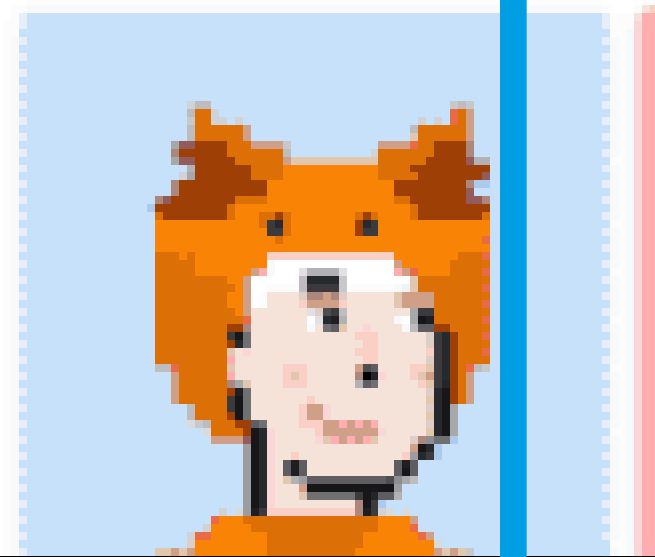
73	73	4	4,000
Items	owners	floor price	total volume

Items Activity

🔍 Search by name or attribute

- 📄 Items
 - 🛒 Buy Now
 - 🏠 On Auction
 - 💳 Buy with Card
-
- 📏 Price
 - 📏 Quantity
 - 📏 Currency

🖼️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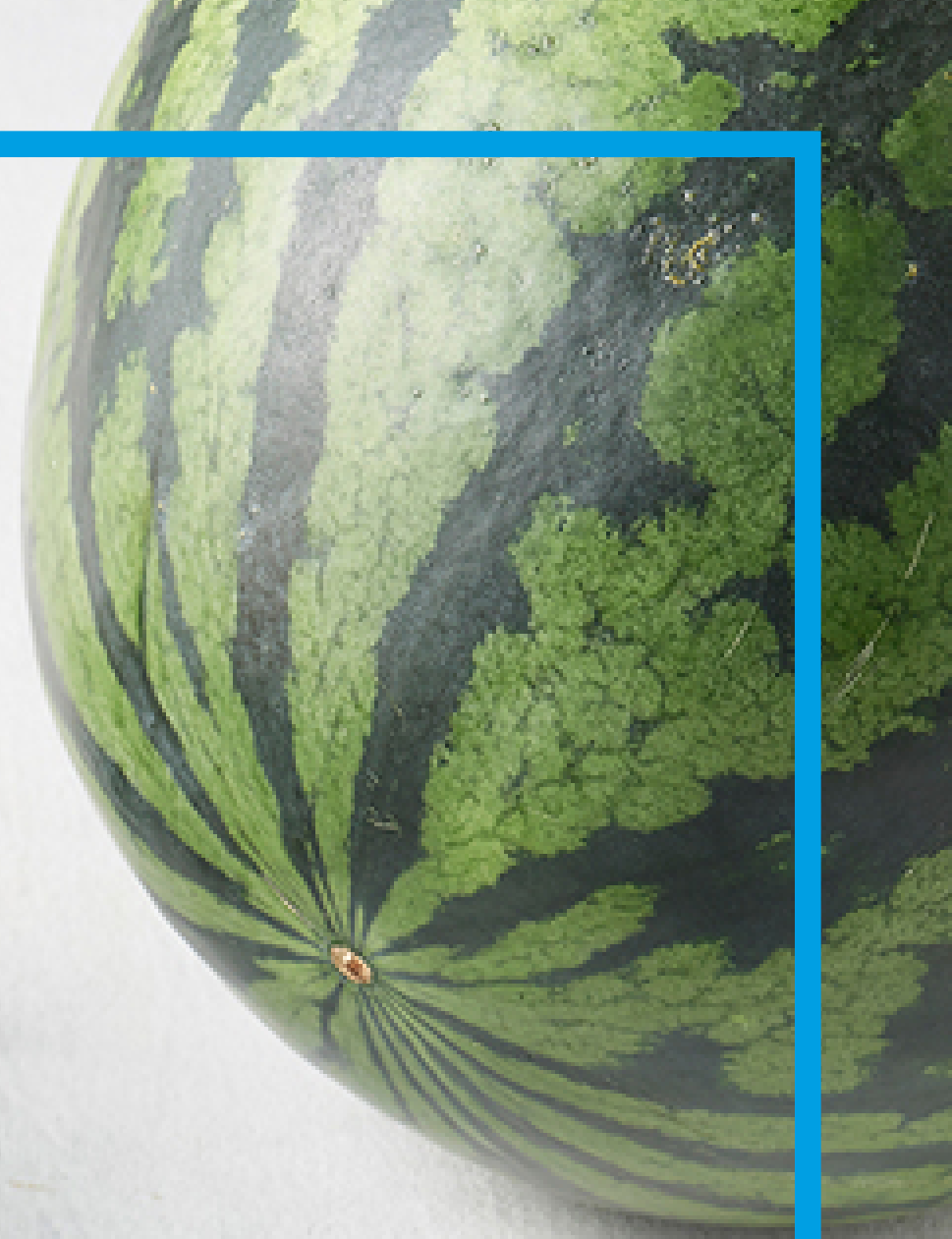


korbit

NFT Employee ID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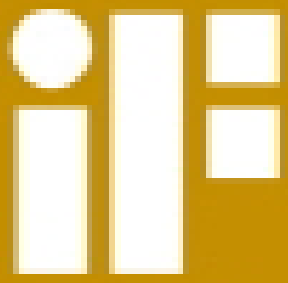
코빗, 전사 임직원에게 사원증 NFT 발급

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을 NFT(대체불가능한 토큰)형태로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빗은 지난 2월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관심도를 높이고자 사원증 이미지를 각기 개성에 맞는 크립토펙크 디자인으로 바꾼 바 있다. 코빗 관계자는 "메타마스크 등 가상자산 보관용 개인지갑을 경험해보지 못한 직원들에게 직접 NFT를 소유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코빗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사원증 NFT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일에 메타마스크 개인지갑으로 일괄 지급했다. 사원증 NFT의 민팅(NFT발행) 비용은 1건당 약 2만원으로 민팅비용은 모두 사측에서 부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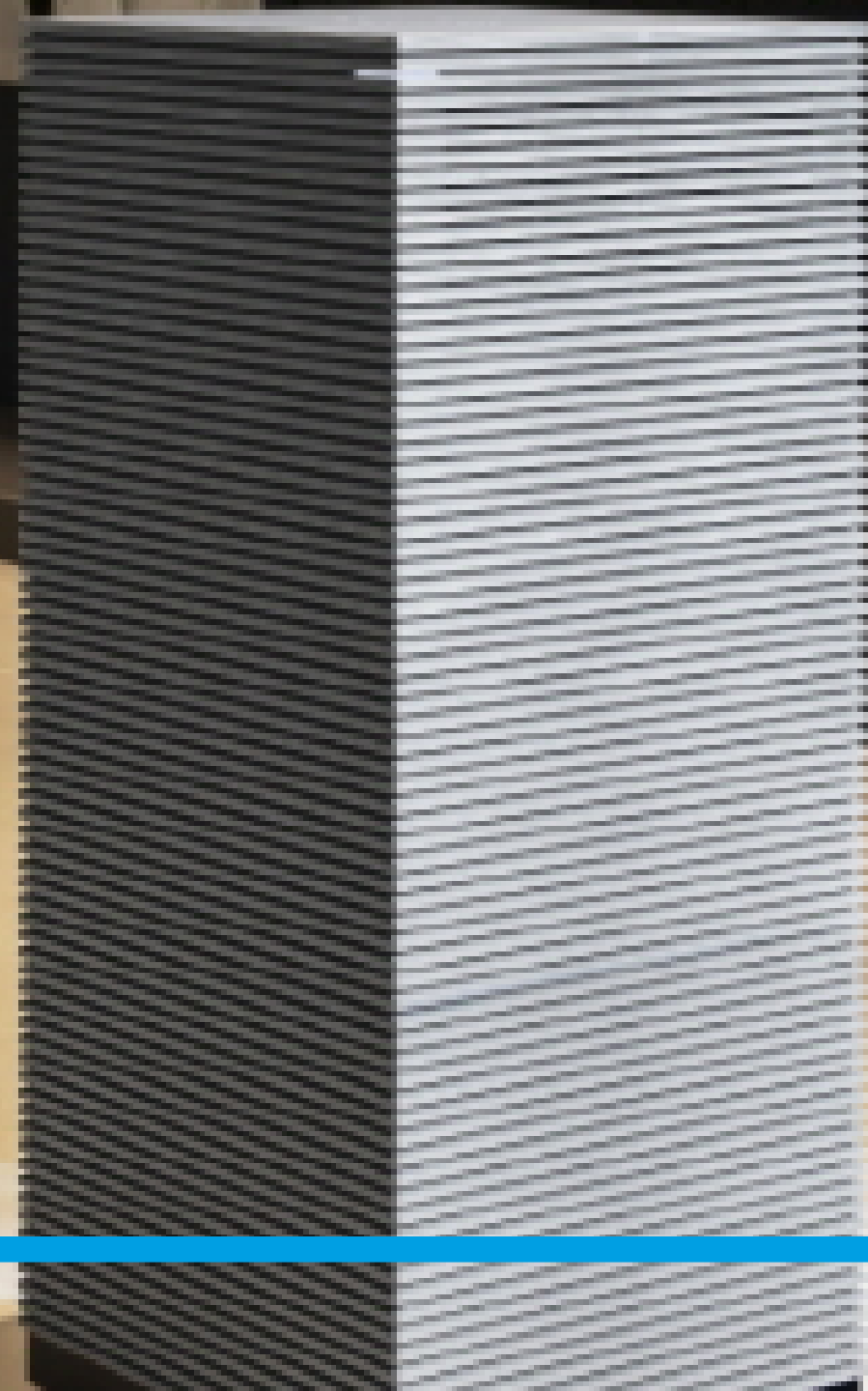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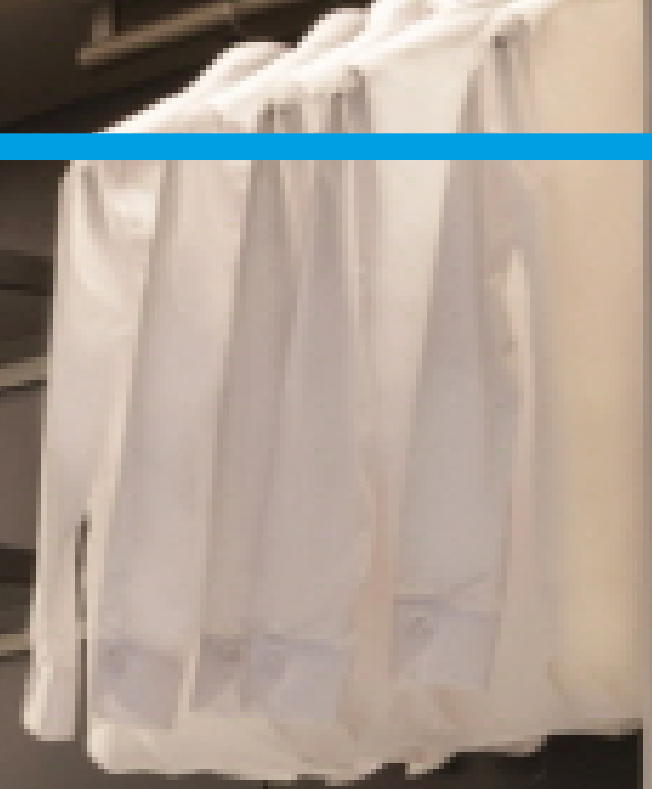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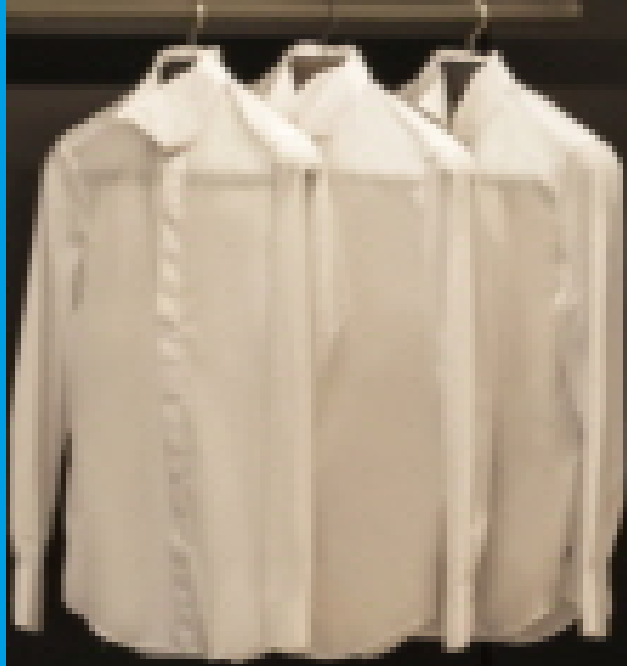


전북 고창군, 고창수박으로 만든 캐릭터빵 출시

‘대한민국 수박의 성지’ 고창군이 수박으로 만든 캐릭터빵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동그라만 초록색에 짙은 줄무늬. 반으로 자르면 빨간 속살에 점점이 박혀있는 씨까지. 빨간 앙금에서 새콤하고 달콤한 수박 맛이 그대로 느껴지며 고창 수박이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와 만난다. 올해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수박빵’은 고창수박과 고창복분자를 원료로 향긋한 수박향과 달콤하면서도 촉촉한 앙금이 맛의 조화를 이루며 검은깨를 활용해 수박씨를 표현하며 먹는 재미와 맛의 고소함을 더했다. 수박빵은 유명작가와 디자이너가 협업해 포장 디자인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GOLD
AWARD
2022



코웨이 노블 컬렉션,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코웨이가 지난해 선보인 환경가전 브랜드 ‘노블 컬렉션’이 독일 iF, 레드닷, 미국 IDEA,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등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라인업으로 구성된 노블 에어케어 솔루션 시리즈는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공간미를 높인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간결한 직선 구조의 타워형 디자인을 일관되게 적용해 노블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했다. 코웨이는 노블 브랜드를 앞세워 프리미엄 가전 시장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수한 성능은 물론 고급 인테리어 효과까지 원하는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A —
· C —
· · C —
· · · F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새 CI공개… '사람과 예술 연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상징체계(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해 27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한 CI는 ACC 재단의 비전인 '아시아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콘텐츠 교류의 중심'을 기반으로 '연결과 조화'를 주요 핵심어로 설정해 시각화했다.

기관을 상징하는 심볼(Symbol)은 점과 선을 기본 요소로 사용했다. 점은 '사람'을, 선은 '예술'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ACC 재단이 사람과 예술 사이에서 조화롭게 연결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부각했다. CI는 ACC 재단이 개발·유통하는 콘텐츠와 문화상품을 비롯해 주요 행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브랜딩
뉴스

